



# 평화의 도구

제 181 호

2008년 9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부회장 : 음광인 아오스딩 sfo 562-902-1585  
 서 기 : 김창순 데레사 sfo 714-447-0504  
 회 계 : 홍병숙 올리안나 sfo 714-522-0675  
 양 성 : 김영배 요한 sfo 714-447-8890  
 평의회원보조 : 김재현 안젤라 sfo 562-694-1919  
 평의회: 매월 첫째 일요일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8호실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 형제회 소식

### ▶10월 월례회겸 돛자리피정

일시: 10월19일(일) 11시  
 장소: Ralph Clark Regional Park  
 8800 Rosecrans Ave  
 Buena Park, CA 90621  
 (Beach Blvd North 방향→  
 Rosecrans에서 우회전→  
 오른쪽에 위치)

준비물: 점심각자 준비  
 (갈비와 음료수만 평의회에  
 서 준비합니다.)

### ▶11월 월례회및 서약식/입회식

일시: 11월16일(일)  
 장소: 성토마스 한인 성당  
 주례: 김재섭 마리비안네 신부

### ▶서약및 입회예정자 피정

일시: 11월15일(토) 일일 피정  
 (장소및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서약자 연회비(Fair share)송금

2008년 서약자 연회비 \$2000을  
 지구형제회에 송금하였습니다.

### ▶가톨릭 워커 무숙자 봉사

10월 첫째 주일에 봉사합니다.  
 8시 30분 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문의 : 평의회원

주소:316 Cypress Ave, Santa Ana  
 714-558-7478

### ▶형제회 원호및 도서담당

원호: 이병재 힐라리오  
 도서: 조성운 안젤라

### ▶프란치스칸 신학생 종신서원식

#### 축하합니다!!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소속인  
 김인 요셉 신학생((현재 웨스트  
 민스터 성녀 클라라 형제회 소속  
 인 김선장 말가리타 자매의 자제)  
 이 다음과 같이 종신 서원식을 하  
 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라며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4일(토) 10:00AM

서약식 미사 및 리셉션

-장소: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2040 W. Artesia Blvd.

Torrance, CA 90504

-주례: Very Reverend Christo-  
 pher Deitz (Minister Provincial)

### ▶선종

홍병숙 올리안나 자매님의 모친  
 이신 황옥성 마리아 자매님께서  
 지난 8월25일(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안에서 영  
 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 ▶컵은 각자 준비하기

#### 수고하셨습니다 !!

#### 9월 식사준비

이옥수 아네스 이규성 바오로  
 곽춘무 데레사 곽인애 막달레나  
 최화자 안젤라 김성희 데레사

#### ▶ 10월은 제 4구역

#### 병환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권에스돈 올리안나  
 이강림 막달레나  
 박계옥 안나  
 이수경 안나  
 백병길 힐데갈드  
 이복내 마르타  
 김화성 바오로



####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9월 15일 김영배 요한  
 9월 17일 문명금 데레사  
 9월 17일 백병길 힐데갈드



## 작지만 좋은 몫을

<이해인 수녀님 글중에서>

내가 종종 다시 읽어보는 우화 중에 노턴 저스터의 <점과 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직선 하나가 자기와는 다르게 생긴 점의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의외로 점은 선에게 ‘너는 막대기처럼 뻗뻗하고 둔해. 자기 속에만 얹매어 있고 갇혀 있잖아. 외곬인데다 꼭 막혀 있어. 착 가라앉아가지고 답답하단 말이야. 자기 감정을 짓밟고 억누르고 꿈쩍도 못하게 하지’ 라고 쏘아붙이며 거칠고 단정치 못한 형클이 하고만 어울려 다니곤 했다. 그래도 직선은 좌절하지 않고 점이 감탄하게 되리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별도리가 없어 ‘이젠 어쩔 수 없다’고 포기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커다란 집중력과 자제력으로 각을 하나 만들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도 구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놀라 밤잠도 설치가며 연습을 해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십각형 등 원하기만 하면 무슨 모양으로든지 자신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다. 점은 비로소 힘차고 재치 있고 새로운 모습의 선에게 훌쩍 반해 버리고 점과 선은 무책임하고 불확실한 형클이를 따돌리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는 막대기처럼 뻗뻗하고 둔해. 자기속에 얹매어 있고 갇혀 있잖아. 외곬인데다 꼭 막혀 있어’라고 내뿜은 점의 말이 꼭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해서 혼자서 얼굴을 붉히게 된다. 가뜰이나 마음 그릇이 크지도 못한 데다 소임에서의 경험의 폭도 넓고 깊지 못하여 참으로 융통성 없고 답답한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한다. 수십년의 수도 연륜에 비하면 턱없이 미성숙하고 덕이 부족한 나를 독자들이 글만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거나 이상적인 표현을 하거나 하면 나는 정말이지 몸둘 바를 몰라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뻗뻗하고 지루해 보이는 규칙생활이 늘 새

롭고 즐거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좋은 몫을 찾아내어 꾸준히 지속해 온 노력 덕분이라고 확신한다. 그 작지만 좋은 몫이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또한 잊혀지기도 쉬운 평범한 일들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빨간 수실이나 바늘, 천 조각, 또는 현 우표 등이 필요하다고 혼잣말처럼 말할 경우 꼭 내게 부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갖다준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그것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미리 찾고 공부해 간다든지, 어떤 공동장소에 며칠씩 잊혀진 채 놓여 있는 물건들을 유심히 보아 두었다가 그 주인에게 챙겨 준다든지 하는 것 등등이다. 다른 일들로 바쁠 땐 약간 귀찮게 생각될 때도 없지 않지만 이렇듯 조그만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삶은 단조롭고 지루할 틈이 없어진다.

우화 속의 직선이 점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발성을 발휘하여 온갖 모양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하게 자기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뻗뻗한 자신을 구부릴 줄 아는 적극성과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만은 겸손으로, 고집스러움은 온유함으로, 웅졸함과 인색함은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굴곡을 만들어 가는 곡선 만능가가 된다면 그만큼 즐거운 삶이 될 것이고 기쁨을 나눌 벗들도 많아질 것이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잔잔한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새해엔 나도 곡선을 더 많이 그리는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매일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공초 오상순님의 평소의 말씀을 구상 시인이 정리했다는 ‘꽃자리’를 다시 외워본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 성 프란치스코 영성



### 이상적인 형제상에 대하여

참으로 착하신 사부는 형제들을 어느만큼 성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열정적 사랑과 완덕에 대한 뜨거운 집념을 태우며 착한 작은 형제들이 지녀야 할 덕성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착한 작은 형제라면 거룩한 이 형제들의 생활 습성을 본받고 그들의 행적을 따라야 한다고 언제나 말하였다. 즉,

- 베르나르도형제의 철저한 신앙과 가난에 대한 사랑
- 거룩하고 정결했던 레오 형제의 단순과 정결
- 수도회에 들어간 최초의 귀족이며 천성이 정중하고 친절하  
안젤로 형제의 정중한 마음씨와 친절하  
마음씨
- 훌륭하고 믿음 깊은 호소력이 있는 마세오 형제의  
인자한 모습과 천성적인 분별력

- 하느님께 들어 올려진 에지디오 형제의 완덕
- 잠을 자나 일을 하나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느님께 마음을 바친 루피노 형제의 덕성과 꾸준한 기도
-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목상의 소망이었고 그 마음 안에 가난의 참 뜻을 깊이 새겨 왔기에 끝내는 인내의 경지에 이르고 만 주니퍼 형제의 인내
- 그 당시 다른 어떤 형제보다 신체가 튼튼했던 라우스의 요한 형제의 육적, 영적 용기, 일생동안 언행이 자비로만 가득 찼던 루제로 형제의 자비
- 그리고 루지도 형제의 신중성, 이 형제는 어느 곳에 서나 한 달 이상 머물고자 하지 않았으며 한 곳에 정이 들 때쯤 되면 즉시 그곳을 떠나면서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다”고 말했다.

### - 완덕의 거울 85 -



## 우리 사부 세라핌 성 프란치스코 거룩한 상흔(1회)

축일: 9월 17일

생애 말기 사부님께서 천상 세계로 옮겨가  
기 2년 전 라 베르나를 찾았을 때 그는 심  
한 정신적인 갈등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었  
다. 그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르친 제자  
들 중 여럿이 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  
며, 형제들의 수효가 많아지면서 형제회의  
경향이 자기가 견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  
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크게  
실망하고 자기의 일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방황의 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라 베르나에 침거하며 미카엘 축일을 준비  
하는 40 일 기도를 하던 중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세라핌 환시를 보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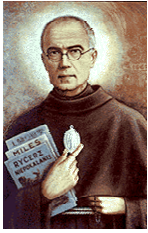


이 때 세라핌의 여섯 날개 가운데 십자가를 보  
았으며 환시가 사라진 뒤 성인께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마음과 더불어 주님의 다섯  
군데의 수난 상처가 각인되어 고통을 느꼈다.  
사부님의 오상은 수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닮도록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의미를 지  
니며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즉 가난의 구체적  
표지이며 성인의 일생을 극적으로 요약하는  
사건인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받음  
으로 완전한 해방 체험을 하게 된다.

### ◀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작가: 사세타 (1392? -1450)

(Stefano di Giovanni Sassetta)



##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편

(III)

"주님 !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었을 때, 그건 하느님을 도와 준 것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을 때,

그건 하느님을 격려해 준 것이다.

고통에 파묻혀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였을 때,

그건 하느님을 위로해 준 것이다.

네 곁을 스쳐 가는 모든 이에게 조그마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건 하느님을 소중히 대해 준 것이다.

하느님 ! 이제 당신 곁으로 가옵니다.

인자하신 성모님 !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빌려 주소서."

부소장 팔러치는 손에 연필을 쥔 채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부소장은 명령이 내려지자 명단 가운데 한 번호를 지우고

대신 다른 번호 1667을 정확히 적어 넣었습니다.

불타던 태양이 지평선에 걸렸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성체의 모습으로 빛났습니다. 아무도 이처럼 아름다운 황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갓 !"

사형수들은 맨발로 죽음의 감방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신부님은 맨 뒤에서 머리를 약간 수그린 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막시밀리안 신부님을 비롯한 제 14호 감방의 사형수들은 죽음의 감방을 향해 한 발짝씩 내닫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돌담으로 회색빛 칠을 한 '죽음의 감방'은 차라리 공포 죽음의 광장같이 보였습니다.

14호 감방의 사형수들이 도착한 밤에도 이미 20여 명의 불행한 사형수들이 옆의 지하 감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터운 벽도 사형수들의 부르짖음을 막지는 못했고, 막시밀리안 신부님은 꿈같은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형리가 소리쳤습니다.

"자, 모두 옷을 벗어라 !"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미 정신을 잃은 사형수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고,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은 그리스도께서 옷을 벗긴 채 십자가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고통스런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걸치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자, 모두 벗었으면 이 옷을 입어라."

그것은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은 줄이 죽죽 그어진 초라한 누더기였습니다. 햇빛과 공기마저 통하지 않는 감방은 눅눅한 습기가 바닥에 깔려 있었으며, 오직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로 가득찬 컴컴한 감방의 육중한 문이 닫혔고, '죽음의 감방'은 사형수들의 아우성만이 감방안을 채웠습니다.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어오지도 환기도 되지 않는 습기 찬 지하 감옥은 독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역한 냄새 때문에 나치스 경찰들은 이곳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친 사형수들이 한 돌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이 시체처럼 누워 있을 때도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은 그들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신앙을 주소서"

나치스 경찰들은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다른 사형수들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문 옆에서 늘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들은 신부님의 위로의 말과 기도를 듣고 싶어했으므로 기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죽어야 합니다. 자, 모두 기도하십시오."

"네, 신부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이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

사형수들은 문을 여닫는 소리도 못 들을 만큼 기도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치스 경찰들의 '이 개 같은 놈들아. 조용히 못 하겠니 ?'라는 고향 소리야 겨우 소스라쳐 놀라곤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월에 마지막편이 게재됩니다.]